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설명회 개최

농진청, 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특성 소개 · 재배 이용 기술교육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 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풀사료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사료가치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풀사료지만, 국내 기후에 적합한 품종이 없고 재배가 어려워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23년 국내 최초로 '알파킹'이 개발돼 현재 권역별로 농가 재배 실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알파킹'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버널' 품종에 비해 조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도 우수하다. 게다가 연 4회 수확했을 때 '버널'보다 생산성이 11% 높았다.

톨페스큐는 국내 기후에 잘 적응하고 지속성이 뛰어나 초지 조성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목초로, 방목생태축산 등 방목 중심의 축산에 가장 적합한 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품종 '그린마스터 4호'는 2018년에 개발된 국산 품종으로, 국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물론 외국산 품종에 비해 사료가치(영양성분)가 우수하며, 생산성 또한 평균 5%가량 높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이번 품종 설명회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들이 농가에 널리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하고 국내 풀사료 종자 자급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지난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사무소부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 농축협 9개 사무소 수상'

NH농협손해보험 2024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지난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사무소부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은 10개 부문 9개 농축협이 수상했다. 대상 4곳(진안농협, 봉동농협, 남원축협, 임실농협), 우수상 2곳(정읍농협, 황토현농협), 헤이림상 2곳(남부안농협, 구천동농협), 공로상(개인 연도대상 수상자 5명 이상 배출) 2곳 농축협 수상(진안농협, 전주농협) 등 큰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진안농협은 사무소와 개인부문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사무소부문 대상 수상과 더불어 단일농협 전국 최대인 개인수상자 7명을 2년 연속 배출하여 공로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다.

NH농협손해보험 김용재 전북총국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연도대상에서 전북농협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장님과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2025년 친환경 자원순환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친환경 자원순환 전북협의회는 지난 14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협의회 소속 조합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친환경 자원순환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안), 신규회원 가입(안) (순정축협)을 의결하고, 지난 2년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회장 김기동 조합장(회현농협), 부회장 김용준 조합장(장수농협), 감사 최우식 조합장(남부안농협)이 2025년도를 이끌어갈 임원진에 연임되었다.

이어, 2025년 주요 추진사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추진 경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현황 등 고품질 퇴비의 생산·공급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동 회장은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다함께 노력하고 고품질 퇴비 생산에 더욱 힘쓰자"고 말했다.

이정환 농협전북본부장은 "본 협의회를 통해 농·축협 간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농가에 고품질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농산물 생산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신임 사장,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첫 업무 개시

"현장 중심 경영 · 사회적 가치 실현" 경영혁신 의지 밝혀

전북개발공사 제12대 김대근 사장이 취임했다.

김대근 사장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새만금 관광단지(초입지) 및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새만금 관광단지(초입지) 개발사업은 2021년 7월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예비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진행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사업의 비용분담 주체 일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근 사장은 첫 방문 일정을 새만금 사업현장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 30여년간의 민간 건설 분야에서 쌓은 오랜 실무 경험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도정 핵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상근 기자

권재한 농진청장, 과수화상병 방제 시연 현장 점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 있는 배 과수원과 시설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뿔나방 방제 작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작물별 생육 동향을 살폈다.

먼저 배 과수원에서 천안 지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보고 받고, 과수 궤양 및 과수화상병 의심 나뭇가지 제거 등 사전 예방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약제 방제 시연을 참관하고, 과수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과, 배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http://fireblight.org)'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 정보 또는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방제 안내 문자 등을 참고해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배부한 약제를 방제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오상근 기자

농협생명 신상품 '동주공제 요양을안심해NH간병보험' 전주농협서 1호 가입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14일 출시된 농협생명 신상품 '동주공제(同舟共濟) 요양을안심해NH간병보험'에 전주농협 김태영 신용상임이사와 나병훈 경제상임이사가 동시에 전북 지역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동주공제 요양을안심해NH간병보험은 노후 요양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보장 보험상품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장기요양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고객니즈 충족을 위해

출시 됐다.

가장 큰 특징은 보장 범위의 확장이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보장 범위가 확장됐으며 재가급여 중 이용률이 높은 주·야간 보호(데이케어센터)보장도 신설했다.

간병인 보장도 강화됐다. 실제 간병인 사용 비용에 따라 연간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간편가입도 가능한데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장기간병보험 전용 간편가입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적 연금제도인 노란우산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노란우산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사이버 테러나 자료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오상근기자